

재외동포의



2013 8월호

특집 : 4~9

“모국 정 느끼며 한인 자긍심 생겼다”

2013 재외동포 청소년 1차 초청연수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 신명나는 우리 가락 사물놀이



전통 음악인 풍물을 변형하며 탄생한 사물놀이는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우리 음악 중 하나다.

우리는 시나위나 독주곡 산조 등 훌륭한 전통 음악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우리 음악은 다름 아닌 사물놀이이다.

사물놀이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음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엄청난 음량과 강한 비트에서 나오는 역동감 때문에 듣는 사람은 신명의 경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축구장이 넓어도 사물놀이 한 팀만 있으면 한국 응원단은 다른 나라 응원단을 제칠 수 있다.

사물놀이가 현재의 형태로 된 것은 1970년대 남사당패의 후예들인 김덕수 씨와 그의 동료의 활약 덕분이다. 농민들이 하던 풍물에서 유래한 사물놀이는 팽과리(쇠), 장구, 북, 징의 4가지 악기가 등장하며 영남과 호남의 풍물 가락을 모아 재구성했다고 한다.



2	한국의 열	신명나는 우리 가락 사물놀이
3	목차	
4	특집	“모국 정 느끼며 한인 자긍심 생겼다” 2013 재외동포 청소년 1차 초청연수… 국내외 학생 800여 명 어울려
10	기획	CIS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한국어 집중교육 교수법 강화에 도움”  중국지역 조선어 교원 초청연수 “조선족사회 발전 위해 민족 교육 부흥 중요하다”
14	현장의 목소리	재외동포재단 초청 유학생들 판소리도 배우고 떡메도 치고… 방학 맞아 모국 역사·문화 체험 ‘한민족 자각 깊어져’
16	OKF 뉴스	2013 재외동포문학상 심사 “작품성 뛰어난 응모작 넘쳤다” 외
18	한민족공감	인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빛났다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 4연패 ‘한국 독무대’
19	글로벌코리아	네팔한인회 이끄는 ‘히말라야 수행자’ 영봉 스님
20	지구촌 통신원	아시아나기 사고 지원활동 팔 걷어붙인 현지 동포들 “한국 여객기에서 생긴 일… 국적 불문하고 도왔다”
22	우리말 배워봅시다	
23	동포문학	그를 기다 김희라(캐나다) 2011년도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24	나의 살던 고향	호반에 깃든 낭만… 춘천
26	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올해 16번째로 열린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청소년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로 1차 중고생 연수에는 국내외 학생 8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모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한인 청소년 500여 명과 국내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를 펼쳤다.

# “모국 정 느끼며 한인 자긍심 생겼다”

2013 재외동포 청소년 1차 초청연수... 국내외 학생 800여 명 어울려

올해 16번째로 열린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청소년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로 1차 중고생 연수에는 국내외 학생 8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국 9개 지역으로 흩어져 모국체험을 했다. 비빔밥 만들기를 하며 먹을거리 체험을 하는 학생들(상). 전북 부안의 모항에서 갯벌체험에 나선 참가자들이 바지락을 캐고 낙지를 잡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하).

**차** 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목을 받으며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올해 1차 초청연수에 참가한 중고생은 서울과 지방에서 모국을 체험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 차세대들의 '한민족 정체성 심어주기'를 위해 실시하는 '2013 재외동포 청소년 1차 초청연수'가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1차 연수에는 세계 53개국에서 한인 청소년(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에는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국내 청소년 30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단순 강의 청취, 관광 차원의 연수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모국을 이해하는 시

간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또, 과학기술과 창조산업 융합 현장을 견학 및 체험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의미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1차 연수는 전국 9개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중고생 참가자들은 춘천, 속초, 안동, 구미, 전주, 대전, 진주, 군산, 울산 9개 지역 마을로 나누어져 일일학교·민박 체험 및 창조경제 미래과학 현장체험을 했다. 또, 국내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와 한국의 성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들이 모국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모국연수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백제의 문화의 본 고장인 공주대학교 캠퍼스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됐다.

### 초청연수는 한민족 미래 이끌 차세대 네트워크

1차 연수 참가자들은 춘천, 속초, 안동, 구미, 전주, 대전, 진주, 군산, 울산 등 9개 지역의 도시와 마을로 나누어져 농촌 일손 돕기, 갯벌 체험, 일일학교·홈스테이 체험을 하며 모국의 정취를 흠뻑 맛보았다.

한국어의 보급이 잘 이뤄진 지역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지역민과 스스럼없이 어우러지기도 했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참가자도 손짓 발짓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1주일간 모국의 따뜻한 정을 흠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서먹서먹함을 느낀 것도 잠깐, 농어촌 체험과 홈스테이를 함께하면서 어느새 '지구촌 한 가족'이 됐다.

7월 17일 지방으로 출발한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지방 출신 한국 학생들의 안내로 농촌과 도시를 둘러보았고 넷째 날에는 홈스

테이도 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학교 학생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고향에 온 것처럼 환대를 받아서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농촌 일손 돕기 체험에 나선 참가자들은 고추, 옥수수, 상추 등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기도 하고 부침개를 부쳐 먹거나 감자를 구워먹기도 했다. 군산 지역으로 간 학생들은 부안의 해변에서 '갯벌체험'을 하며 바지락을 캐거나 낙지를 잡기도 했다.

해변 정화활동과 농촌 일손 돕기 등을 한 참가자들은 저녁에 체험마을에서 준비한 바비큐파티로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삼겹살 등을 구워 된장에 쌈 싸먹으며 '신토불이' 밥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해마다 초청연수가 장마 기간에 열려 기쁨을 줄었지만, 올해 대회는 그야말로 행사장마다 비가 피해간 것처럼 날씨가 좋았다"며 "덕분에 제대로 체험도 즐기고 아무 탈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17일 공주 지역의 무령왕릉 등 백제문화를 탐방한 학생들은 9개 지역으로 흩어졌다.



- 1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시내의 전통시장에 들러 도시체험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2 전북 김제 덕암고를 방문한 동포 청소년들이 일일학교 체험을 하며 현지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 3 22일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 올레' 행진을 벌인 참가자들이 통일대교 남단에 모여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 4 충남 금산의 부리수통마을에서 모국체험을 한 학생들이 농촌 일손 돕기 활동 후 래프팅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방방곡곡 누비고 한국가정서 홈스테이

군산으로 출발한 학생들은 17일 오후 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만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8일에는 새만금방조제를 견학하고 나서 모항으로 이동해 해변정화 활동을 벌였고 오후에는 갯벌체험도 했다.

전통 양반 고을로 유명한 안동 군자마을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전통 고택이 고스란히 보존된 한옥마을에서 지내며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의 멋을 느끼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손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 전통 먹을거리 체험과 민속놀이인 대동놀이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익히고 하회별신굿을 배웠다.

충남 금산의 부리수통마을에서 마을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농촌 일손 돕기를 마친 후에는 래프팅에 나서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겼다. 또 전자통신연구원의 ETRI 전시관을 견학하면서 미래과학에 대한 체험 학습의 시간도 가졌다.

속초로 떠난 청소년들은 '어촌체험'의 하나로 고깃배를 타보기도 했으며, 속초 농공단지 등을 둘러보며 창조경제에 앞장서는 기업의 장래를 살펴보았다.

속초 중앙시장을 둘러보면 한국 전통 어시장의 생태와 문화를 접하기도 했고, 국내 참가 학생의 학교를 방문해 교정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교실을 방문한 동포 학생들은 학생들과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했다. 학생들은 공부, 이성 친구, 대학 진학 등 비슷한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미국에서 참가한 동포 학생은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높은 면학 분위기를 실감했다"며 "아침 일찍 등교해 수업 마치고 자율학습과 학원을 거쳐서 11시, 12시에 귀가한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온 학생은 "놀고 싶고 이성 친구도 만나고 싶은 텐데 지독하리만치 공부하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이유를 알겠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이번 초청연수의 백미 중 하나는 현지 학생의 집에서 한국 가정을 체험하는 '홈스테이'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1~2명씩 짝을 지어 학생 집을 방문했다. 홈스테이 가정의 한국 학생의 안내로 시



농촌 체험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전통 먹거리 체험을 하며 '신토불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옛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전북 부안의 모항 해변에서 '해변정화 활동'을 하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참가자들.



7박8일의 일정으로 모국체험에 나선 참가자들은 22일 저녁 폐회식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내 곳곳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보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 동포 청소년들 DMZ 행진

초청연수에 참가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대회 마지막 날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행진을 벌였다.

재외동포 중·고생 500여 명은 22일 오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임진각 망배단을 출발해 통일대교 남단까지 'DMZ 평화 올레' 행진을 펼쳤다.

청소년들은 DMZ 철책선을 따라 임진강 길을 걸으며 남북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느꼈다. 'PEACE KOREA', '평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뉴질랜드에서 온 차겨레(15) 군은 “통일대교를 건너면 바로 북한인데 겹겹의 철책이 가로막은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뤄져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청소년들은 지난 16일부터 춘천·속초·안동·구미·전주·대전·진주·군산·울산 등 9개 지역의 마을로 흩어져 1일 학교와 민박을 체험하고 창조경제 미래과학 현장을 견학한 뒤 이날 평화올레 행진에 참가했다.

러시아의 콘스탄티노 김(18) 군은 “말로만 듣던 라면·김치·비빔밥 등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더 깊은 모국의 정을 느꼈고, 동편제 마을을 돌아보고서는 첨단 IT 문명과 오랜 전통을 조화시키는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뿌듯해했다.

초청연수 폐막식은 이날 오후 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에서 열렸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막식에서 “첫날 서로 서먹서 먹하던 학생들이 일주일간 농촌과 도시를 체험하고 전통문화 등을 배우며 흠뻑 정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모국의 친절한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한민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모국연수 수료증을 나눠주며 “모국연수를 통해 여러분은 또 하나의 조국을 가슴에 품게 됐을 것”이라며 “새로 사귀 친구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무척 소중한 존재”라며 “모국도 여러분이 세계 속에 존경받는 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 참가자 소감

### 윤도일(미국)

한국 친구의 집에 홈스테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대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무척 정겹게 느껴졌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연수가 큰 자극이 됐다. 각국에서 온 많은 친구와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우정을 쌓은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체험을 하면서 해외 어디에 살아도 모두 뻗속까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 이선림(태국)

한인회를 통해서 '청소년 초청연수'를 소개받았다. 무엇보다 기쁘고 반가웠던 것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처지가 같은 데서 오는 동질감이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후딱 가버렸다. 아쉽고 이곳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싶다.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멋진 연수에 대해서 잔뜩 자랑할 생각이다.

### 이성연(중국)

갯벌에 처음 들어가 봤다. 시간가는 줄 모르며 즐기다 보니 일주일이 지나갔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된 것이 제일 기쁘다. 페이스북이나 SNS로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낼 생각이다.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때로는 우리말로 때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다. 전 세계 곳곳에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좀 더 글로벌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우리말과 영어를 더 잘고 닦아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 김영인(호주)

이렇게 많은 나라에 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실감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에서, 또 중남미 국가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재외동포재단의 초청과 YMCA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다.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서 밭일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고됐지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만들기까지의 수고로움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다.

### 구강산(아르헨티나)

주변에서 초청연수에 갔다 온 선배가 꼭 가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게 친해진 것이 신기하다. 동포라는 친밀감 때문인가 같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 김알렉산드르(카자흐스탄)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늘 '이방인' 같아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는 '초청연수'에 꼭 참가하고 싶었다. 이곳에서 일주일간 난 전혀 외롭지 않았다. 각국에서 온 동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슷한 고민과 관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멋진 체험이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좀 더 친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돌아가면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에 전념할 생각이다. 내 뿌리가 한국이란 걸 실감한 시간이었다.

### 최다연(브라질)

초청연수에 참가해보니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 역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경험도 쌓고 교류도 넓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한국에 자주 올 기회가 없었지만 브라질에도 한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다. 임진각에서 휴전선을 걸어보며 조국은 아직 분단 중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우선빈(독일)

방학 때 한국을 찾은 적이 있지만 농촌 속으로 들어가 체험도 해보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땀 흘려 일 해보니 농부의 수고로움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 중에는 우리말을 잘 못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손짓 발짓으로도 충분히 통했다. 한민족이라는 공통의식이 우리를 쉽게 친하게 만들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한국 생활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창**

# CIS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한국어 집중교육 교수법 강화에 도움”



CIS지역 교사연수에 참가한 고려인 교사들이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미니 한복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5주 동안 경기 용인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2013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독립국가연합지역 5개국 총 32명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한국어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 집중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역사·문화·예술 체험 및 활용수업, 유아교육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재외동포재단은 “초청 연수는 민족교육 환경이 열악한 CIS 및 중국지역 한글학교 교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현지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 한글학교 한국어교사 가운데 이전에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청된 교사들은 한국어 능력 개발을 위한 집중연수, 국내 초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 참관, 한국 전통문화 실습(악기와 민요, 민속놀이, 한지공예 등), 문인화 교육실습, 한국의 역사 특강(고대사, 근현대사, 의복), 한국 역사·문화체험(한국민속촌, 강화도 등), 미니한복제작체험, 한국의 예술특강(음악, 미술), 민요체험, 한국의 문화특강(음식), 독도 특강, 멘토 강사와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사회에 올바른 한국어와 우리 역사·문화 교육을 보급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인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지역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의 표준 표기에 대한 공부 못지않게 한국 문화 체험이 수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1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수업이 끝나면 휴게실로 몰려들어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

하거나 자신은 현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등 서로 간에 수업 노하우를 교환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수업뿐 아니라 교사 간에 노하우도 나누었다. 서로 입장들이 비슷해서인지 금방 친해진 것이 큰 수확”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참가한 교사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는 많지만 교수법이 있는 책이 없어서 아쉽다”며 “열악한 동포사회 현실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수과정을 담당할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목표했던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었다”며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CIS 한국어교사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도 했다. 우리 춤 배우기, 한식 만들기, 종이접기, 민요 배우기 등을 배우면서 교사들은 면면히 내려온 민족 정서를 익혔다.

한편, 재단은 CIS지역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역사·문화 소양 강화를 위한 동 연수를 200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CIS 한글학교 교사들이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현지에 돌아가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 보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

참가자 인터뷰



이을가  
(61 ·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의 41번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전체 학생 중에 고려인 자녀는 30% 정도다. 이전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가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배웠다.

사물놀이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호응이 높다. 2008년부터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업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미니 한복 만들기 과정이 무척 인상 깊다.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수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류드밀라  
(54 · 러시아)

모스크바의 1086학교에서 20년째 한국어를 초등학생에게 가르쳐왔다. 고려인 자녀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다른 민족의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기에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처음 한국어 교사를 시작했던 20년 전에는 교재도 없어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다. 교재를 직접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초청 연수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정안나  
(28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지역의 28번 학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교사로 발령난 지 1년으로 아직 서툴지만 가르치려는 의욕만큼은 누구 못지않다. 우르겐치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웠다.

졸업 후에 좀 더 실력을 연마하려고 타슈켄트 한국어교육원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워 교사에 도전했다. 이번이 처음 한국 방문으로 모든 게 놀랍고 특히 한국의 발전상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 정식과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련화  
(54 · 러시아)

CIS지역 교사 초청 연수에 처음 참가했다. 사할린의 크라스나고르스트 초등학교에서 4년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한국어로 말해 왔기 때문에 언어 구사에 불편함은 없다. 사할린의 한인 후손들은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우리말 실력이 떨어져 잘 못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그렇기에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한국 방송 중에 가요무대를 특히 좋아한다. 민요와 타령을 좋아해서 배워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번 연수가 한국어 실력과 교수법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에브게니  
(25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베틀로파플로스트 17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나 자신도 17학교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배웠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쓰는 유행어 등 최신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교사 중에는 아직도 북한말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교실에서는 전부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다.



김스베틀라나  
(32 · 카자흐스탄)

현지 무궁화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어교육원의 교사 양성반을 졸업했고, 2006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고려인 학생이 중심이고, 다른 민족의 학생들은 주로 한국어교육원을 통해 배우고

있다. **창**

# 중국지역 조선어 교원 초청연수

## “조선족사회 발전 위해 민족 교육 부흥 중요하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15일부터 보름 동안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에서 '2013년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사진은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경복궁을 방문한 조선어 교사들.

중국 조선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선족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가 국내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15일부터 보름 동안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2013년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보다 초청인원을 확대해 동북 3성 등지에서 총 62명의 조선어 교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내몽고 등의 조선족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이번 연수는 재단이 최근 중국 현지 조선족학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강화 요구를 반영해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2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외대와 함께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연수 기간에 참가자들은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수법을 습득했다. 또, 한국의 역사 및 다양한 문화 체험 시간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초청된 교사들은 한국의 최신 국어 교수법 습득, 한국 교육기관 방문 및 수업 참관, 전통문화 실습(사물놀이 등), 한국 역사·문화 탐방(백제문화 유적지, 전주 한옥마을, 천안 독립기념관, 경복궁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연수에 참가한 조선어 교사들은 조선족 자치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조선족 학교가 줄어드는 등 민족교육이 위기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면서 “민족교육 부흥이 조선족 사회 발전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린성 용정고등학교 교사로 연수에 참가한 장리나 교사는 “2천400명을 넘던 학생 수가 이제는 600명에 불과하다”며 “한족학교로 옮기는 아이들을 붙잡으려면 학교의 교육을 현실에 맞게 바꿔서 한국어와 조선어를 병행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이룽장 해림시 조선족중학교에 재직하는 이주천 교사는 “조선족 학교 학생 수가 줄면서 최근 한족학교와 합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민족교육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사는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는 조선어는 북한식 말투다. 앞으로는 한국과의 늘어나는 교류를 고려할 때 한국식 표현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며 “조선족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유학을 할 때 빨리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중국 개혁개방 이전 1천여 개가 넘던 조선족학교가 최근에는 300여 개 이하로 줄어드는 등 조선족 사회의 우리말 교육 기회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유지 계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단은 과거 10여 년간 중국지역 민족학교 지원의 하나로 정보화 기자재(컴퓨터, 프린터 등)를 지원해 왔으며, 중국지역 조선족 청소년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선어 교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지역 조선어 교원 연수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참가자 수를 해마다 늘려오고 있다. **▶**

## 참가자 인터뷰



남춘자 (42 · 내몽골 조선족초등학교)

내몽골 우란호터시 조선족초등학교에서 22년째 조선어과목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내몽골 지역에 유일한 조선족학교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왔는데 이번에 연수에 참가해 무척 기쁘다. 한국 문화를 여러 가지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다.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법을 강사들로부터 배운 것이 특히 도움이 됐다. 교사의 사명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우란호터시에는 조선족이 5만 명 정도 살고 있다. 초등학생이 많이 줄어들어 지금은 150명 정도다. 부모가 대도시와 한국으로 취업 이주를 하면서 남아있는 학생들이 부모 없이 조부모나 혹은 친척집 아니면 하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교육의 부재가 큰 문제다.

이번 연수에서는 마술로 하는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다. 잘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



서동위 (45 · 연길시 13조선족중학교)

모국의 초청연수 참가는 처음이다. 21년째 한국어 과목을 맡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조선족 사회가 개혁 개방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어서 교육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연수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접하고 배울 기회가 됐다. 특히 '스터디 코리아' 등 사이버를 통한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앞으로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

강사로 나선 강용철 선생의 다매체 활용법이 인상 깊다.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수를 통해 배웠다. 새로 익힌 교수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벌써 기대가 된다.



정홍화 (44 · 선양시 화신조선족초등학교)

23년째 교직에 몸담아 왔는데 제자들이 사회에서 활약해 조선족의 위상을 높일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최근에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늘면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취직도 늘고 있다. 조선족 아이들에게는 한국과의 연결 고리가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어 반갑다.

현지에서 조선어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어 초청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라서 교사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연수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실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주천 (51 · 해림시 조선족중학교)

우리 학교는 헤이룽장성에서 '장원의 요람'이라 불릴 만큼 교육열이 높다. 최근 10여 년간 성취회 문과 수험에서 장원이 두 번이나 나왔다. 목단강시 대학 입시 문과 장원도 3번이나 된다.

그렇지만,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학교의 장래가 어둡다. 2004년에 2천여 명에 이르던 학생이 지금은 280명에 불과하다. 교사 지원생이 줄고 있다. 급여가 높고 대우가 좋은 기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젊은 교사들의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교육 못지않게 교원 양성이 조선족 사회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창**

# 재외동포재단 국내 초청 유학생들 판소리도 배우고 떡메도 치고...

방학 맞아 모국 역사·문화 체험 “한민족 자각 깊어져”



7월 3일 오전 충남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의 전통 장을 제조하는 (주)외가집에서 학생들이 떡메치기(좌)와 옛날 손두부 만들기(우) 체험을 하는 모습.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국내에서 공부하는 12개국 105명의 동포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투어에 나섰다.

러시아,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에서 온 동포 장학생들은 7월 2일부터 2박3일간 공주, 충주, 부여에서 백제문화를 탐방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원이 주관한 역사문화 체험에서 학생들은 첫날 충주 술박물관을 견학하고 음주에 관한 전통 예절인 향음주례(饗飲酒禮)를 배웠다. 이어 충주 공예박물관에서 나전칠기 공예교실에 참가해 칠기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오전에 충남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의 전통 장을 제조하는 (주)외가집에서 옛날 손두부를 만들고 떡메를 쳤다. 오후에는 서천 월하성 어촌마을로 이동해 갯벌 체험으로 맛조개와 바지락을 캐다.

마지막 날에는 공주박물관과 무령왕릉 등 백제문화를 탐방하고, 공주대학교에서 판소리를 체험했다.

과테말라에서 유학 온 유지현(서울대 경영학부 1학년) 씨는 “옛 향교나 서원에서 가르쳤다는 우리의 전통 음주 예절에 겸양과 존

중의 미덕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전통이 지금까지도 지켜져 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려인 4세로 카자흐스탄에서 유학 온 삼솟지노바 알리나(한국외대 신문방송 1학년) 씨는 “전통문화를 체험할수록 내가 한민족이라는 자각이 깊어졌다”며 “태어나 처음으로 갯벌에 발을 담그고 조개를 캐본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뿌듯해했다.

학생들은 3일 저녁 ‘지역별 네트워크’의 시간을 마린, 유학생 선후배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초청장학생회(가칭)를 결성했다.

재외동포재단의 강운모 차세대팀장은 “우수한 동포 학생을 민족정체성과 세계화된 지식과 사고를 갖춘 인적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초청 장학사업의 목적”이라며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국의 역사와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동시에 유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우수 동포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1997년부터 석·박사 과정 초청 장학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학사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장**

**CIS지역 박울리아**(키르기스스탄, 한국외대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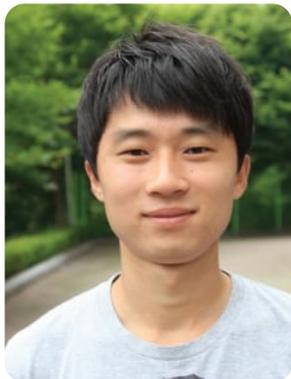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CIS지역 출신 장학생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모임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학교도 포함해서 장학생 친구들을 모으고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봄 가을로 야유회도 열어서 친목도 도모하고 유학생할 관련한 정보도 나누

는 등 서로 돕는 초청장학생회를 만들어가겠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켈 인문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전공했다. 사실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사할린지역이 아니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다.

고려인 4세로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했다. 석사과정이 끝나면 내친김에 박사과정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공부를 다 마치면 돌아가서 대학 교단에 서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 내 전공은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는데 앞장서고 싶다.

**중국지역 김의**(중국, 연세대대학원)



7월 3일 저녁에 중국지역 초청장학생들이 모여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중국 출신 장학생은 숫자가 많다. 우선 SNS 등 소셜네트워크나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만나고 서로 공부를 돕는 모임으로 키워나가겠다.

정기 모임은 1년에 2번 정도 열 계획이다. 장학생 명단과 주소 등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겠다.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에는 합격

했지만, 자격증을 받기 위한 인턴과정은 아직 밟지 않았다.

졸업 후에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돕는 일을 했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한국인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의 정착을 돕는 법률 지원을 펼치고 싶다. 그러려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유학을 결심했다.

조선족은 한중 양국의 문화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

**기타지역 이심혜**(말레이시아, 한국외대)



중국과 CIS지역을 제외한 일본, 아시아, 북미, 중남미, 대양주, 유럽과 아중동 지역을 한데 묶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유학생 수는 적다. 그만큼 거주국의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제3국 유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많은 결과이기도 하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사업이 재단 초창기부터 펼쳐왔기에 졸업한 선배들이 많다. 사회에 진출해서 활약하는 선배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싶다. 장학생 대부분은 목표가 있지만, 선배들의 활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 간의 유대강화도 중요하다. 공부를 하려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선 한국식 학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치중할 생각이다.

한국인 아버지와 말레이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학 오기 전에는 한국어를 인사말 정도밖에 못 했다. 유학을 결심한 것은 아버지와 가까워지려고 한국을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오기 전에 현지에서 사물놀이도 배웠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친구가 없어서 나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란 걸 실감 못했다. 여기오니 친구도 많이 생기고 점점 생활이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친근감을 느낀다. 유학기간에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싶다. **▶**

## 2013 재외동포문학상 심사 “작품성 뛰어난 응모작 넘쳤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재외동포문학상 시, 단편소설, 수필, 청소년 부문에 대한 본심 합동 심사가 7월 23일 서울 중구 수하동 센터원빌딩 '고상'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재외동포문학상 시, 단편소설, 수필, 청소년 부문에 대한 본심 합동 심사가 7월 23일 서울 중구 수하동 센터원빌딩 '고상'에서 열렸다. 올해 심사를 맡은 각 부문의 심사위원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응모작 가운데서 당선작을 가려내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40개국에서 최소 1편에서 최대 5편까지 1천여 편의 응모작이 답지해 해를 거듭할수록 동포문학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동포들의 열정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몇 년간의 추세로 볼 때 시와 소설 부문에서 작품성 뛰어난 응모작이 나왔으며, 당선작 가운데는 문단에 바로 등단해도 될 정도로 필력을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응모작 가운데 이민 생활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소재가 많은 것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소재가 참신성은 떨어지지만 매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동포에게는 절실한 부분”이라며 “동포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특징”이라고 정의했다.

소설 부문의 심사를 맡았던 구효서 작가는 “동포문학상 수상을 기념적인 일과성으로만 지나치기에는 정말 아깝다”며 “당장 문단에 편입시킬 만한 수준작들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구 작가는 “동포 사회가 살고 있는 배경은 소재 영역의 확대와 차별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며 “문학상을 통해 신에 작가를 발굴하는 등단의 등용문으로 문학상의 위상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필과 시 부문은 다양한 국가에서 응모작이 나왔지만 소설은 미국과 중국 등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소설이란 것이 호흡이 긴 만큼 집필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필요했으리라는 것이 심사위원의 판단.

김형경 작가는 “응모작 가운데

너무 소설 형식에 치우친 작위적이거나 아니면 수기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이라며 “수기에 치우친 작품은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지만 형식이 소설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는 응모 부문에 수기를 포함하면 더 많은 응모작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다.

시 부문을 심사한 신달자 씨는 “제목에 맞춰서 쓴 시 보다는 동포 생활 자체가 그려져 다양한 소재로 진솔성이 더해졌다”며 “동포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생각보다 풍부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반갑다”고 평가했다.

신 작가는 동포문학상이 한국 특유의 정서를 유지시켜주는 힘을 만들어 주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수상자들이 수상 후에도 꾸준히 활동해 국내 신춘문에 등에도 도전해 외연을 넓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문의 심사에서 심사기준뿐 아니라 향후 가야할 길을 제시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 뽑힌 각 부문 대상 1명, 우수상 2명, 가작 3명 등 총 30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우수상, 가작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공관 일정에 맞추어 각 거주국 공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대상자는 국내로 초청할 예정이다.

## 아시아한인회총연합대회 · 동남아한상대회 방콕서 열려

‘2013아시아한인회총연합대회’와 ‘제8회 동남아한상대회’가 지난 7월 4일 오전과 오후에 태국 방콕 임페리얼퀸즈파크 호텔에서 열렸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승은호 회장, 송창근·최석 부회장을 비롯해 전용창 준비위원장, 태국 채언기 회장, 인도네시아 신기업 회장 등 각국 한인회장과 한상을 80여 명이 참석했고,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김종완 사업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글로벌 코리아의 힘, 동남아한상대회’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3일 저녁 ‘환영의 밤 행사’로 시작돼 4일 오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총회, 한국문화원 방문, 동남아한상연합회 총회, 태국 경제동향과 태국 비즈니스 환경, 태국 역사와 문화 주제 강연으로 이어 진행됐으며, 대회 3일 차인 5일에는 동남아한상 골프대회와 환송만찬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승은호 동남아한상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는 앞으로 세계경제에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시아 각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동남아 한상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채언기 재태국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동남아한상대회는 아시아지역 한인회와 한인의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시작되었으며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아시아 한인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2013아시아한인회총연합대회’와 ‘제8회 동남아한상대회’가 지난 7월 4일 오전과 오후에 태국 방콕 임페리얼퀸즈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각국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김종완 사업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동남아한상과 아시아한인회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동남아한상을 비롯한 아시아 한인사회의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외동포재단도 재외동포와 모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오후 열린 동남아한상대회 전체토론회에서는 이 대회를 동남아 한상 1천 명이 참석하는 대회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과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한상대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 영주권자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7월 9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꾸린 태스크포스(TF)팀 협의의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쪽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국내에서 활동할 때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작지 않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각종 복지서비스와도 맞물려 있어 재외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지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 인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빛났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기치로 40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배려의 축제인 2013 인천 실내 & 무도아시안게임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열렸다.

44개국 선수 1천700여 명이 개·폐막식이 열린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을 비롯해 인천·안양·안산 일대의 9개 경기장에서 당구, 볼링, 체스·바둑 & e스포츠,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카바디, 킥복싱 & 무에이, 크라쉬, 25미터 쇼트코스수영 등 9개 이벤트(12개종목)에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당구, 볼링, 댄스스포츠 등 9개 종목 168명(선수 121명, 경기임원 34명, 본부임원 13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홍보대사인 당구 종목의 차유람 선수는 한·일전이 펼쳐진 여자 10볼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양정두 선수는 25미터 쇼트코스수영 남자자유형 50미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많은 선수들이 메달 소식을 전했고, 체



7월 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스 혼성 단체전에 참가한 김유빈 선수는 아홉 살 최연소 국가대표로 관심을 모았다.

한국은 대회 최종일인 이날도 금메달 2개를 추가해 총 금메달 2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19개를 수확, 종합 2위로 열전을 마무리했다.

##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 4연패 ‘한국 독무대’

우리나라가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4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해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한국은 7월 7일 오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폐막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국제기능올림픽에 모두 27차례 출전한 한국은 이번 종합우승으로 18번째 정상에 올랐다. 또 지난 2007년 일본 대회, 2009년 캐나다 대회, 2011년 영국 대회에 이어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은 1967년 16회 스페인 대회에 첫 출전한 이후 1973년 서독 대회와 1975년 스페인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1977년 네덜란드 대회부터 올해 독일 대회까지 총 20차례 참가해 일본, 스위스 등 전통적인 기능 강국들과 경쟁하며 단 2차



독일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18번째 우승 쾌거를 달성한 한국 선수단이 11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례만을 제외하고 종합 우승을 차지, 기능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

# 네팔한인회 이끄는 ‘히말라야 수행자’ 영봉 스님

“승려라서 가족도 없고 이권 쟁길 일도 없으니 한인회장으로 적격 아닌가요?”

네팔한인회는 지난해 12월 ‘히말라야 수행자’로 불리는 영봉 스님(속명 임종범·57)을 제6대 한인회장으로 추대했다.

삭발 염의를 한 출가 비구승이 한인회장을 맡은 사례는 세계 각국을 통틀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네팔을 찾은 스님은 처음에는 이곳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히말라야는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며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6년째 대부분 시간을 네팔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최근 “친목 활동만 하는 한인회가 아니라 안전·의료나 법률, 비자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돕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처님의 나라’로 불리는 네팔이지만 정부가 종교 자유를 선포한 이후 목사·선교사가 대거 들어오면서 한인 7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개신교인이다.

그는 “종교는 다르지만 한인회가 하는 일은 종교와 관련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사실 그를 한인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다름 아닌 목사·선교사들이었다.

그가 한인회장으로서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안전 확보’. 연간 4만 명의 한국인이 히말라야에 오르려 네팔을 찾지만 안전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인회장이 된 직후 그는 네팔 전역에 8개의 연락사무소를 만들었다. 지진 위험성이 큰 네팔에서 지진 발생 시 집결지 역할을 하고 네팔 전역을 다니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때 주기 위해서다.

“산악국가여서 안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대사관에서 소소한 안전 문제까지 챙기기는 어렵잖아요. 네팔에 거주하는 한인뿐 아니라 방문객의 안전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한인회의 역할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는 네팔과 태국에서 한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안나푸르나 4봉을 오른 산악인이기도 한 그는 산을 오르다 짐꾼 역할을 하는

셰르파(Sherpa)들의 삶에 충격을 받았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2008년 카트만두에 세운 ‘세종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원’, 해발 2천700m 산속 오지 파쁘레 마을에 2010년 세운 ‘파쁘레 초등학교’의 졸업생은 어느새 1천 명을 바라보고 있다. 태국 난민촌에도 학교 3곳을 세웠다.

5년간 체중이 25kg이 줄 정도로 강행군이었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가이드와 셰르파가

한인의 안전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원’이 돼 덕을 보고 있다.

그는 네팔인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해 대학에 보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준 높은 지원과 현지인과의 진정한 교류가 재외동포가 할 수 있는 국위 선양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봉사단체들이 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가는데 운영을 할 사람이 없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한인회가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네팔 한인사회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 문화원을 빌려서 행사를 치를 정도로 조직이나 시설이 부족합니다. 한인들이 네팔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인회를 재정비하고 네팔 사회와 교류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장**



2008년 영봉스님이 해발 2천700m 산속 오지 파쁘레 마을에 2010년 세운 ‘파쁘레 초등학교’의 졸업생은 어느새 1천 명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포사회가 아시아나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위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인근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7월 8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원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 아시아나기 사고 지원활동 팔 걷어붙인 현지 동포들

“한국 여객기에서 생긴 일... 국적 불문하고 도왔다”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가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동포사회가 각종 생필품 제공, 부상자 통역서비스 등 사고 수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포사회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인근 한인단체 총출동

샌프란시스코 인근 한인단체와 총영사관은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지난 7월 8일 오후 한국 총영사관에 모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총영사관과 한인단체, 한국기업 현지법인 등은 이번 사고에 중국인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이날 중으로 현지 중국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단체별로 성금을 모금해 현지 적

십자사와 중국 총영사관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전달했다.

한동만 총영사는 제인 김 한국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을 중심으로 이곳 한인 1.5, 2세대도 별도로 성금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 전일현)와 실리콘밸리 한인회는 이날

부상자들을 포함해 사고기 탑승객들에게 전달할 트레이닝복과 속옷, 양말 등 생필품 200여 명분을 구입했다.

한인회들은 사고 첫날부터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퇴원 수속 등을 포함해 통역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전일현 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공항과 병원 등을 돌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지만 초기에는 통제가 심해 쉽지 않았다”며 “일단 탑승객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바람에 소지품을 모두 두고 내려 옷가지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적기가 사고가 난 만큼 한인 사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피해를 본 중국인들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영사관과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정순 회장도 사고 직후 공항과 병원 등을 돌며 부상자나 가족들을 위로하고 일부 부상자에게 옷가지 등을 제공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가 우리나라 항공기인 만큼 우리 동포뿐 아니라 중국인 등 탑승객 모두를 상대로 효율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부 부상자들이 이송됐던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메디컬센터의 자문의사인 유고명(66) 박사는 사고 당일인 6일 라디오를 통해 사고소식을 접하고 이송된 부상자들이 영어를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만난 한국인, 중국인 부상자 4명 가운데 김모(19·여·대학생) 씨가 퇴원 후 오갈 데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귀국할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

그는 함께 여행 온 김 씨의 사촌 언니를 수소문해 총영사관에 데리고 가서 임시여권을 만들고서 집으로 데려가 쉴 수 있게 도왔다.

다음날인 7일 김 씨 일행이 귀국을 위해 아시아나 특별기 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

유 박사는 “여학생들이 딸만 같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원래 의사인 만큼 부상한 여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1973년 미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만 30년째 개업의를 하고 있다.

### 현지 언론 편파보도에 반발, 성명 발표도

한편, 미국 한인사회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사고와 관련해 미국 언론의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보도가 잇따르자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는 7월 14일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정보 과잉 공개와 현지 언론의 편파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보도 등을 더는 넘겨버릴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인회는 성명에서 “NTSB는 언론을 통해 발표한 후속 조치 계획을 조속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편파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보도를 한 언론들은 이해할 만한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 위로를 전한다는 한인회는 “해당 기관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인들의 권리신장 운동 단체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미국 사회에서 큰 사고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나왔다”면서 “이번에도 처음부터 기체나 공항, 관제 등 미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차별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직도 미국 사회 밑바닥에는 인종 차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면서 “미국이 세계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지키려면 이런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NTSB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종사 과실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고와 달리 조사 진행상황을 과잉 공개해 세계 최대 조종사 노조단체인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로부터 “사고 직후 부분적인 자료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 언론들도 NTSB의 브리핑 등을 인용해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갔으며 서열 위주의 권위주의, 높임말이 있는 한국어 등 한국 문화까지 거론했고 한국인 조종사 4명을 인종차별적 농담에서 따온 저급한 영타리 이름으로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 네티즌들은 “아시아인은 운전을 못 한다”는 등 한국인과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한국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태환 위원장 이름으로 NTSB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에게 “사고조사 관련 정보를 충실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해달라”면서 “사고조사 정보는 국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NTSB의 지나친 정보 공개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상의 항의서한으로 보인다. [\[창\]](#)

임상수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특파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언론의 편파보도에 한인사회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은 데보라 허스먼(NTSB) 위원장이 7월 7일 오후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아시아나기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출판 '바른말 고운말')

### 꺾속말과 귀엣말

‘꺾속말’은 ‘다른 사람의 귀에 입을 대고 소곤거리는 말’을 뜻한다. 흔히 두 사람만 은밀히 이야기할 때 한쪽 손으로 가리고 속삭인다.

흥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얘기라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꺾속말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은 깊은 친밀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할 때도 꺾속말이 가능하다. 모니터 화면의 ‘꺾속말’이나 ‘귀엣말’을 선택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

‘꺾속말’과 ‘귀엣말’ 중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 다 표준어다.

### 곶슬머리? 곱슬머리(고수머리)!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 재미있는 기사를 봤다. ‘예수는 짧은 고수머리에 농부 얼굴’이라는 제목아래, 쌀가마도 어렵지 않게 번쩍번쩍 들 것 같은 검게 그을린 얼굴이 있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법 인류학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예수의 얼굴을 재현한 것이다.

사진 속의 사내는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와 전혀 달랐다. 기독교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하얀 피부에 가냘픈 몸, 우수에 찬 눈빛의 예수보다 훨씬 친근감 있고 사실에 가까워보였다.

‘고수머리’는 ‘곶슬머리’와 같은 뜻이다. ‘태어날 때부터 곱슬곱슬 꼬부라진 머리카락, 또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꼬부라지다’, ‘꼬불꼬불’, ‘꼬불탕꼬불탕’ 등의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곶슬머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곶슬머리’하면 왠지 더 곱슬곱슬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어는 ‘곶슬머리’와 ‘고수머리’다.

### 강남콩? 강남콩!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단백질과 지방질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사랑받아 온 식품이다. 최근에는 항암 작용에 노화 방지뿐 아니라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뇌졸중 등을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다.

강남콩은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19세기 초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강남콩은 1989년까지 ‘강남콩’이 표준어였다. 중국 강남 지방에서 들어왔기 때문이다(강남+콩). 그런데 ‘강남콩’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지자 표준어를 ‘강남콩’에서 ‘강낭콩’으로 바꾸었다.

# 그를 킵다

김희라(캐나다) 2011년도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남편의 방한복을 손질한다.  
지퍼를 올리려니 꿈쩍 않는다.  
그가 걸어온 길이  
지진으로 찢어진 도로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봉합되지 않는다.

녹슬어 이가 빠진 지퍼  
혹한의 거리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의 어금니가 뽑히는 것도  
참아낸 것일까.  
일거리를 파헤치던 소맷귀는  
낡아 헤어져 탄력을 잃고  
말없이 삼키고 만 사연들이  
실밥마저 닳아 터진 자리에서  
비져나오다 말고 주춤거린다.  
살며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본다.  
싸늘한 동전 한 닢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던 그가  
자린고비로 살아온 삶의 비늘이다.

작은 일에 투정하며 썩기를 박았던 말들  
묵묵히 받아넘기며 살아온 그이  
터진 옷깃을 킵다 말고  
가벼워진 방한복을 와락 안아본다.





춘천 소양호에 핀 아름다운 물안개. 일교차가 큰 날이면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물안개가 생겨나 강과 호수, 대지를 뒤덮는다.

## 호반에 깃든 낭만... 춘천

**춘**천(春川)은 감수성이 뛰어난 문인과 소소한 일상을 영위하는 범인을 막론하고 만인이 동경하는 여행지이다. 첫사랑의 풋풋함부터 인생 늘그막의 여유까지, 춘천은 모든 상념과 감정에 어울리는 곳이다. 무더운 여름에도 봄처럼 언제나 새로운 곳이다.

춘천이 '호반의 도시'로 유명세를 얻은 것은 온전히 댐 때문이다. 북한강과 소양강, 공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춘천에는 춘천댐, 의암댐, 소양강댐 등 세 개의 댐이 있다. 용수 확보와 재해 방지를 위해 건설된 댐은 흐르는 물을 가둬 강을 드넓은 호수로 변모시켰다. 그 결과 비록 생태계는 단절됐지만, 황홀한 물안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 소양호 너머 청평사 가는 길

춘천의 댐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단연 소양강댐이다. 소

양강댐은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소양호를 배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는 경승지가 청평사(淸平寺)이다. 춘천 북산면에 속해 있는 청평사는 소양강댐에서 여객선을 타고 10분 남짓이면 다다른다. 하지만 승용차로 가자면 춘천에서 구절양장의 길을 따라 30분은 달려야 한다.

청평사 선착장에서 사찰까지는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다. 완만한 오르막이 계속돼 왕복 2시간 내외의 트레킹 코스로 제격이다. 청평사는 오봉산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청평사 바로 아래에는 구성폭포(九聲瀑布)와 영지(影池)가 있다. 두 곳 모두 산수가 매우 미려하다. 폭포수가 9가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고 하는 구성폭포가 있다.

경내가 아담한 청평사는 973년에 창건된, 역사가 장구한 절이다. 보물로 지정된 회전문을 지나면 대웅전과 관음전, 나한전이 입구(口) 자 형태로 배치돼 있다. 대웅전 뒤편에는 청평사에서 가



- 1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며 녹음이 우거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 2 고즈넉한 산사인 춘천 청평사의 경내 풍경. 조선시대 김시습이 머무르며 공부를 했었다고 전해지는 청평사는 지금도 참선을 위한 사찰로서 분위기가 조용하다.
- 3 춘천을 대표하는 요리는 단연 닭갈비와 막국수이다. 메밀의 담백함을 느낄 수 있는 막국수는 땅이 척박하고 날이 추운 강원도 춘천에서 꽃피운 음식이다. 매년 춘천에서는 막국수·닭갈비 축제가 열리고 있다.
- 4 인형극 박물관은 가족 여행객이 방문하기 적합한 곳이다. 인형극의 종류를 파악하고, 각국의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 5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하는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움직이는 만화인 애니메이션의 원리와 역사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보전이 있다. 참선을 위한 도량이어서 매우 고요하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해 전국을 유랑했던 김시습도 청평사에서 거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 남이섬, 메타세콰이어 길에 젊음을 묻다

남이섬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이다. 섬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나미나라 공화국'으로 개칭한 뒤, 남이섬은 매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겨울연가'의 촬영지라는 후광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남이섬을 방문하는 청춘남녀와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남이섬이 늘 새로운 이유는 '문화'에 있다. 남이섬에서는 최근 6월에만 3개의 전시회가 개최될 정도다. 전시회 외에도 카페나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환경은 남이섬이 중시하는 또 다른 테마이다. 남이섬에서 '잡초는 화초, 술병은 꽃병'이 된다.

둘레가 5km에 달하는 남이섬은 전체가 공원이자 녹지이다. 그래서 어느 곳을 걸어도 삼림욕을 할 수 있다. 남이섬의 백미인 메타세콰이어 길뿐만 아니라 은은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잣나무 길, 강변을 따라 나 있는 자작나무 길, 녹색의 꽃이 튼튼을 닮은 튼튼나무 길, 4월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벚길과 11월이면 땅 위에 노

란 융단을 까는 은행나무 길 등이 조성돼 있다.

### 인형극 박물관, 인형에 영혼을 불어 넣다

1989년부터 인형극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춘천은 '인형극의 도시'다. 2001년 인형극을 위한 전용 극장을 짓고, 전속 극단을 조직한 뒤에는 명성이 더욱 자자해졌다. 인형극장 옆에 자리한 인형극 박물관은 가족 여행객이 방문하기 적합한 곳이다. 인형극의 종류를 파악하고, 각국의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인형극 박물관에 입장하면, 우선 이러한 인형극의 변천 과정을 읽게 된다. 근래의 인형극은 인형에 막대기를 붙여서 조작하는 막대인형극, 인형 안에 손을 넣어 움직이는 손인형극, 인형의 머리와 사지에 줄을 묶어 다루는 줄 인형극, 손가락 그림자로 동물을 묘사하는 그림자인형극 등으로 분류된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손인형극은 조종하기 쉬운 대신 상체만 보인다는 한계가 있고 '마리오네트'라는 별칭으로 더 이름난 줄 인형극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화려함을 연출할 수 있어서 관객의 호응도가 높다.

박물관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인형극을 차례대로 하나씩 이해할 수 있다. 인형극에 쓰였던 인형들이 전시돼 있고, 인형의 작동법을 보여주는 기계가 설치돼 있다. **[참]**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열린다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 동안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이 열린다.

경상북도 경주시가 터키 이스탄불 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엑스포는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서 40개국이 참가한다.

경주와 이스탄불은 고대 실크로드의 동서 거점도시다. 터키의 선조인 돌궐은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고, 한국전쟁 때는 1만5천명을 파병해 도운 '혈맹국'이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한국과 터키 양국은 전시, 공연, 영상·체험, 특별행사 등 8개 분야에서 양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40여개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

일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한국문화관'으로 한국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 한-터 예술 합동교류전, 한국 대표작가 사진전, 한국 문화재 특별전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년별별 판타지공연 '플라잉'과 '비보이 퓨전 공연', '태권도 시범단 공연', '전통 패션쇼'도 열릴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차로'인 이스탄불과 문화엑스포 추진을 성사시킴에 따라 향후 한국 문화와 산업의 유럽 진출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해외 성매매 피해 긴급전화 1366



해외에서 성매매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여성 긴급전화는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속한 귀국을 지원하며,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에게 의료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 모든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 ■ 365일 24시간 연락주세요

(여성 긴급전화는 24시간 무료상담)

- 한국 : (국번 없이) 1366
- 미국(캐나다) : 011-800-1366-1366
- 타이완 : 002-800-1366-1366
- 일본 : 001(또는 010)-800-1366-1366
- 호주 : 0011-800-1366-1366
- 이메일 : 1366korea@naver.com
- 문자상담(휴대폰) : 82-10-9727-1366

## 독자후기 \_ 이준태 (편)

일전에 총영사관에 불일이 있어 들렀다가 '재외동포의 창'이라는 간행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너무도 뜻 깊은 간행물임을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

행물을 몇 부만 총영사관에 비치할 것이 아니라 한 200부 보내서 한인사회 식당, 마트, 교회 등에 배부해 폭 넓게 동포들이 읽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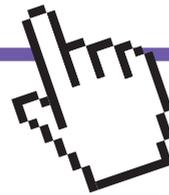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입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 제12차 세계한상대회

THE 12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3. 10. 29(Tue) - 31(Thu)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

"Hansang Network, The Leading Creative  
Economic Strength!"



-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 주관 | 재외동포재단, 광주광역시, 매일경제신문 · MBN
- 후원 |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